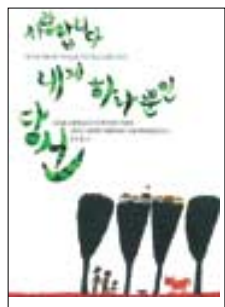


장욱진 화백의 '밤과 노민'.



사랑합니다 내게 하나뿐인 당신 김수환·한승원·최윤 외 지음 그림 장욱진 웅기출판 펴냄 | 1만8백원

생각만 하여도 눈물나게 그리운

아! 어머니 아버지

우리시대 명사 13명이 쓴 '나의 부모님' 이야기

정성스럽게 거름을 주며 거목으로 성장하게 이끈 빛나는 가르침들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의 어머니는 웅기장수 아버지 와 혼인해 일찍 남편을 여읜 뒤 평생을 가난에 쫓겨 살면서도 '아비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며 엄하게 교육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남들은 학창시절 김수환을 보면 귀하게 자란 부자집 아들로 보았는데, "그것은 순전히 어머니가 가난 속에서도 귀하게 키우셨기 때문"이다. 김 추기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나를 있게 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 "오로지 자식들을 피어나게 하기 위해 당신은 밑거름이 되신 분"이라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바친다.

이윤택 감독의 어머니는 집 밖으로 도는 아버지 때문에 평소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 감독 역시 아버지의 역할상을 잠재울 수 없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지만, 바로 그것이 이 씨를 지켜주는 힘이 됐다. 항상 그의 어머니는 "누가 뭐래도 너는 이윤국 같은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준 것이 그를 절망에서 구해준 원동력이 됐다고 회고한다.

손 속의 어머니 회상록은 참으로 가슴 시리다. 열여섯의 어린 나이에 천석꾼의 2대독자로 귀하게 자라 지독한 이기주의자였던 아버지가 공부한다고 훌쩍 일본으로 떠나 새살림을 차렸다. 그쪽 아이들과 비교해서 내 자식이 못되면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머니는 손숙씨 형제들을 들들 붙여댔다. 그런 어머니가 부당하게 느껴졌던 손숙씨는 무엇이건 해서 악물려 주고 싶었다. 그리고 손씨는 "지긋지긋한 집구석 미련없이 떠날거다"며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가난한 연극배우 남자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왔다.

막상 집을 떠날 때 떠나는 것도 내다보지 않고 방안에 누워계시던 어머니가 안쓰러워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고 한다.

예소환을 단단함과 아무집으로 극복했던 한승원의 아버지는 소설가를 꿈꾸는 그를 무척 싫어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한번도 쟁기질을 해본 적이 없던 그에게 쟁기질을 지우고 일을 시켰다. 새벽이 되자 아버지는 손수 사발에 술을 따라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우간 가능하면 남의 그늘에 묻혀 살지를 알아야 한다. 내 불 내가 켜고 그 네를 잠으면서 살아야 쓴다." 한승원의 좌우명이 됐다.

위로 네명의 형이 전쟁 와중에 치료 받음 틈도 없이 차례로 죽어 형님들을 제치고 장남이자 집안의 심상대 종손이 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의 모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 속에 묻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했다. 정동영의 기억 속에 가장 뚜렷하게 각인된 아버지는 '그래? 음, 그래' 하며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듣고 계산 모으었다. 자율과 인정이 아들들을 자긍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무 용가 홍성자의 어머니는 "여자는 남자라 달라 한번 혼인한 다음에는 배울 기회가 없으니 혼인 전에 남자보다 더 많이 배워놓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홍성자가 외국유학까지 하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이다.

이렇게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었던 지은이들의 부모를, 이들이 부모들에 대해 지금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뭘까. 바로 '풍수지탄(風樹之嘆)'이었다. 효도하고자 하나 이미 부모는 곁에 없어 슬프다는.

김주립 기자 jkim@buddhapia.com



장욱진 화백의 '두 가족'.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말 풀이사전 박남일 지음 서해문집 펴냄 | 1만4900원

무작정 어휘 수를 늘리는 것이 말글살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쉽고, 편하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다듬어야 한다. 그것은 글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지은이는 소설, 시, 수필 등의 문학작품에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에서, 또는 대중에 대한 파급력이 높은 방송 대본 등에 우리말을 살펴 줌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두루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우리 옛말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말 600여 개를 선정하여, 그 뜻과 어원을 자세하게 풀어 놓았다. 또한 그 말을 소설이나 수필, 기사문 등에서 어떻게 살려 쓸 수 있는지를 생생한 예문을 들어 보여주었다. '우주와 자연', '생물과 사람', '사람과 사회', '경제활동', '일상생활과 문화' 등의 주제에 따라 구분해 놓았지만, 책 말미에 찾아볼기를 두어 낱말만 가지고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작품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말 낱말들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갈래사전의 형식을 띠고 있어 실용서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하다. 예를들면 금성이 저번 때 서쪽 하늘에 보일 때에는 이를 개발바라기, 태백성, 어둠별, 장경성 등 여러단어로 사용될 수 있게 정리해 놓았다.

생각의 숲 가꾸는 우리말

이 책들을 접하면서 대학시절 공부할때가 생각났다. 물론 예전에도 우리말을 다룬 책들은 많이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정보의 공급에만 치중하다 보니 외면당한 우리말의 신세가 되곤 했다. 어떤 책들은 형식만 단행본이었지 옛날 초등학교 때 보던 교과를 다시 보는 것 같이 잡채 손이 가지 않았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책은 손에 맞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했지만 기획과 편집에 따라 같은 내용도 얼마나 새로운 형식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책은 일종의 공구서(工具書)이다. 공구서란 말 그대로 공부의 도구가 되는 책, 즉 사전, 도감, 연감, 지도책, 연표, 백과사전 등을 말한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종류가 다양해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빈약하다.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삼국지'는 물론 '홍루몽'까지 한 작품을 다루는 사전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토지' 사전을 비롯해서 이제 막 발간을 댔던 삼국지, 화문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기본이 철저한 나라일수록 이러한 공구서의 종류도 다양하고 신뢰성도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출판이 감당해야 할 큰 줄기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는 주제별로 나온 도합 6503개의 율림말(표제어)이 수록되어 있고 본문에도 우리말들이 개근수처럼 밟기게 박혀 있다. 식물 이름 100개만 의우면 이미 심상이 절로 고와진다고 했다. 이 경청할만한 말에 기대어 말해준다. 우리말 100개만 줄일거려 보자. 머릿속이 뻘뻘해지면서 저절로 우리 생각이 출렁해지지 않을까.

김삼미(강원대 국문학 박사과정)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 평상 1500 × 820 × 400[mm] 가격:159,000 할인가:130,000
1800 × 1830 × 480[mm] 가격:229,000 할인가:190,000

◆ 벤치탁자 set 1500 × 1790 × 750[mm] 가격:420,000 할인가:370,000

달라지거나 타침이 전혀 없고 두꺼운 도색이나 칸리가 필요 없이 반 영구적이며 폭이 폭강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목성, 기린, 유영원, 매수석장, 알뜰, 광명 등지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도원사출판 전문업체 지구산림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림 학원회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모집

벌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해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셔서 소원 이루어 보세요

- ▶ 낙산사 흥련암 10분 소요
- ▶ 휴휴암 15분 소요
- ▶ 불탑사 10분 소요
-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은 혜명스님과 상담하세요

강원도 양양군 소양면 학포리
벌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671-6079

소원성취

영험 부엉이 길상도

귀암 합장

불초 소승은 인천 영흥도 토굴에 묻혀 수형중에 있는 남자로서 영험한 부엉이 길상도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때 한 선비를 만났는데, 선비께서 대사는 가솔이 장대하고 기가 넘쳐나기에 만인을 위하여 알려드리니 이점 꼭 지켜주기 바라다며 하시는 말씀이, 부엉이를 그려서 집없는 이와 사업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옛 중국 문헌의 기록을 두루 살피고 정성과 원력을 세워 그려서 그 집에 3년동안 모셔두면 집없는 사람은 3년 안에 집을 사고 사업하는 이는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수년간 실천해 왔는데 바뀐 일 뜻은 보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이들이 소원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뜻이 있으면 본께서는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그려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마도 함께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영흥도 서래달마원 귀암 합장

스님이 만든 후불계실사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 507-7555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8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 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가로 295 × 세로 210 × 너비 70
● 제조원: 국내(한국산)

● 특 정: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은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용수,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핀백이 부착), 영철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동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하여 번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납용이거나 아까지 100% 반품 가능합니다.

* 후불계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대한불교 법정사 051)507-7555 [계좌번호: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